

유성문화원 30돌

〈유성문화원 30주년 기념〉 인문학콘서트

문화학교 해피레터

[강소정 강사] 태평무 전수자가 되다!

〈특별강좌〉 국어문화프로그램

유성 재즈&맥주 페스타

유성의 역사

0시 축제

구즉동 효자정려비

동네산책

〈레이아북카페〉 김은형 대표

문화유성

2024 Vol. 229
www.yuseong.or.kr



02



02 유성문화원 30돌

11 <유성문화원 30주년 기념> 인문학콘서트

[정혜정 교수] 밥 한 번 먹자!

[진형준 브릭 아티스트] 블록으로 나를 만나다

[강이숙 강사]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윤석진 교수] 드라마와 인생

11



22 문화학교 해피레터

[강소정 강사] 태평무 전수자가 되다!

25 <특별강좌> 국어문화프로그램

27 유성 재즈&맥주 페스타

30



30 유성의 역사

0시 축제

구즉동 효자정려비

36 동네산책

<레이북카페> 김은형 대표

30년을 돌아 본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 세미나실에서는 문화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재웅 원장, 최재각 (2010.7~2018.7) 전 원장과 5명의 부원장 그리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원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직원 워크숍에는 유성문화원 임직원간의 소통민 직원 역량 강화, 2024년 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2025 사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웅 원장은 “유성문화원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성문화원은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 예술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드리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많은 분께 사랑 받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유성문화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최재각 전 원장이 유성문화원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 바람을 얘기한 후 이윤미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과장 손새롬이, 사원 박언정, 김순희, 황혜성, 정의진, 정한나)이 2024년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동·서명선·우종수·이태희·임창빈 부원장과 최재각 전 원장 그리고 직원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런 소통의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는 점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구나 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역량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웅 원장은 “직원과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애로사항, 앞으로 집중해야 할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금보다 더 좋은 문화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인사했다.



워크샵

이재웅 원장·최재각 (전)원장



1994 유성문화원 원사사진



신축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은 1994년 8월 9일, 초대 민경용 원장이 취임했고, 2002년 5월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한 토지주 이정훈 씨 등 19명이 유성문화원 건축비 29억 원을 희사해 2009년 12월 현재 위치에 지상 4층 건물을 준공했다.

유성문화원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문화 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 문화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활성화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30돌을 맞은 유성문화원은 그동안 액운을 막고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제’, 유성 온천 문화축제 중 일 년 내내 맑은 온천수가 나오게 해달라는 ‘수신제’, 온천물로 생명을 구한 학이 용왕님께 감사드리는 학춤을 통해 많은 이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이었던 ‘단오제’와 전통 풍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성 풍물 한마음축제’, 샘을 팔 때 유성 봉명마을에 전승되는 ‘온천 착정 놀이’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며 전통 놀이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월대보름제



수신제



수신제(이재웅 원장)



학춤



단오제 및 유성 풍물 한마음축제



유성 풍물 한마음축제



단오제



유성 착정놀이

둘째

유치원생을 초청하거나 찾아가 백제 말 신라와 전쟁에서 크게 다친 7대 독자의 상처를 치료했다는 ‘유성온천 이야기’를 그림자 인형극, ‘건망증 영감’ 인형극을 사회활동 지원사업 알림단이 준비한 공연으로 함께 했다. 1919년 3월 16일 이상수·이권수 형제가 유성장터에서 펼쳤던 ‘장터 만세 운동’과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 당시 전국 최초로 유성에서 의병을 모아 벌였던 ‘의병제’를 연극으로 꾸며 초등학교를 찾아 공연하기도 하였다. 전통놀이를 학교와 행사를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에 힘썼다.



유치원 견학



초등학교 연극 관람



장터만세운동



초등학교 연극 관람



전통놀이체험

셋째

1995년 9월 지역 문화학교로 지정된 문화원에서는 중요 무형 문화재 종묘제례악 대금 이수자 이재천 씨가 지도하는 대금과 단소 등 전통 강좌 11개 강좌, 아코디언, 통기타, 팬플루트 등 동서양 악기 14개 강좌와 김숙자류 이수자 안금분 씨가 지도하는 도살풀이춤과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등 12개 등 40개의 강좌에 650여 명의 수강생이 35명의 강사에게 우리 문화를 배우고 익혀 「함께해유, 별들의 함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와 발표회를 열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수강생 발표회

넷째

지역 주민의 사랑방으로 활성화하고 문화원을 생활 친화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어린이를 초청 우리 예절과 문화를 배우게 하는 ‘꼬마 학당’, 주부 80여 명이 참여한 ‘성현의 인생레슨’에서는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해외에서 온 유학생을 초청해 한국문화와 전통 그리고 禮를 알리는 ‘향교 유학당’에서는 한국 무용, 우리 소리 그리고 다도와 서예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윈드오케스트라 정지석 지휘자, 뇌 과학자 한종혜 박사, 이대 서울병원 골반 건강 물리치료사 한희주 대표, 한국하와이 문화협회 이동걸 대표 등이 펼친 ‘인문 학당’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했다. 명륜당 앞마당에 무대를 꾸며 우리 귀에 익숙한 가요와 아이돌 음악, 팝송 등 다양하게 편곡해 직접 연주한 ‘향교 풍류 음악회’는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혔다.



전시회



꼬마학당



성현의 인생레슨



향교 유학당



인문 학당



향교 풍류 음악회

다섯째

2024 유성문화원 특별강좌 공감과 소통 시리즈로 어르신 국어문화프로그램 '세대 간 갈등극복을 위한 화법'을 7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한성숙 선임연구원이 진행해 자존감을 불어 넣는 대화의 기술을 익혔다.

또 특성화 사업으로 소통과 조화로 크는 아이들, 급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서기, 이를 그림과 삶의 이야기, 한식문화의 씨앗: 쌀 이야기 등 '인문학 콘서트'가 전반기 4회에 걸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후반기에는 조각 맞추기가 예술이 되기까지,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등 12월까지 6회가 더 진행된다.



특별강좌 국어문화프로그램



인문학 콘서트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유성지역 생활 문화 등 동아리가 꾸며 발표한 생활 문화축제, '유성짓다: 예술과 문화, 건축으로 이어지다'는 유성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4명이 참여해 상생, 공존을 주제로 유성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마을로 꾸민 특별기획전은 구민을 특별한 세계로 인도했다.

2022년에는 특성화사업 BRICK HOLIC(브릭 홀릭) 전시회를 열어 1,000여 개의 브력을 이용해 대전의 상징 중 하나인 엑스포 다리를 재현하는 등 레고 브력 창작활동을 하는 28명이 자기만의 작품을 선보였다.



실버 페스티벌



특별기획전

여섯째

1984년 창단해 올해 40주년을 맞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연 2회 초청해 주민을 위해 폭넓은 레퍼토리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 합창단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유성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해 개성 넘치는 선율의 향연을 주민과 함께하는 등 문화 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유성 합창 페스티벌



특화사업 BRICK HOLIC(브릭 홀릭) 전시회

일곱째

유성역사바로알기는 유성지역에 전해지는 구즉동 애막이 놀이, 공식 명칭은 '바구니 둉구나무제'와 전민동에 전해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절차로 장례가 치러졌는지 절차가 보이는 '전민동 상여놀이'를 알림으로써 전통을 고수하며 명맥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코자 했다. 11명의 기자와 8명의 해설사가 꾸미는 '문화 유성'은 년 4회 발간되며, 80여 곳에 배포해 문화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유성문화원은 1년에 2회 지역민의 신청을 받아 정기문화답사를 해 더 많은 지역민과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덟째

유성문화원은 그동안 1997년 제38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 대회에서 '바구니 패싸움 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09년 한국문화원 '2009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수상했다. 2018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2023년에는 지역 문화재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민 문화생활 향유에 보탬이 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문화원상'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인정받았다.



| 정혜정 교수의 인문학 콘서트 |

밥 한 번 먹자!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 정혜정 교수가 들려주는 한식과 얹힌 다양한 이야기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치열한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 특별한 밥상이 차려졌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가 주관하는 인문학콘서트 「밥 한 번 먹자!」는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특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이번 강연엔 약 30명의 수강자가 참여하였다.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음을 기약하는 '밥 한번 먹자'는 약속에서도, 삶을 새 생명에게 양도하는 '밥 순가락 놓다'는 표현에서도 모두 '밥'이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밥'이라는 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셈이다.

이번 인문학콘서트 「밥 한 번 먹자!」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다른 의미인 생명과 연륜, 친화와 힘의 근원을 살펴본다.

강연의 목차와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역사 속의 밥

한반도에 쌀이 유입된 시기는 4천년이 넘지만 주식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필요했다. 여주와 평양지역에서 탄화미(불에 타거나 화학적 변화로 탄소화된 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조상들이 쌀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 3천년 전 신석기 시대로 추정한다. 현대식 밥의 시작은 약 1300년 전, 철기 시대 이후 무쇠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로 추정한다.

II. 문헌 속에 나타난 밥 이야기

삼국사기에 보면 1세기 초 고구려 대무신왕 4년에 솔을 나타내는 정(鼎)이라는 글자와 밥을 조리하는 취(炊)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조선시대 1400년부터 1900년대까지, 고조리서 총 41권 9책 분량에는 밥류의 종류와 조리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III. 향토음식에 나타난 밥 이야기

향토음식은 특정지역의 기후, 지세 등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변천에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개발되어 타지역의 음식과는



인삿말

차별화된 특성을 지는 음식이다. 우리나라 향토음식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비법으로 조리하거나 그 지역의 문화적 이벤트를 통하여 빛달된 음식이다.

IV. 소설 속 밥 이야기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작품 〈날개(1936)〉에는 밥을 잘 쟁겨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그런 밥을 말없이 받아먹어야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 나타나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78)〉에는 집이 부서지고, 먼지 구덩이에 처한 상황에서도 끗꼿이 밥을 먹는 인물들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도 박정애 〈소설 속 치유의 밥상(2005)〉, 최명희 〈흔불(1980~1996)〉 등 수많은 소설작품 속에서 밥은 저마다 다른 의미로 등장하며 극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V. 시 속에 나타난 밥 이야기

시 〈밥에 대한 예의〉 속 화자는 돈을 벌기 위해 지게를 지고 고된 노동을 해내셨던 아버지의 승고함을 기리며 밥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 〈긍정적인 밥〉은 돈의 가치를

밥의 가치에 비하여, 박한 돈인가 싶다가도, 또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먹을거리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금액인지를 깨닫는다. 물질을 버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이다.

VI. 판소리 속 밥 이야기

유명한 판소리 〈춘향전〉, 〈홍부가〉, 〈토끼전〉에도 밥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를 들어, 〈홍부가〉에는 “어머니, 나는 서리쌀밥에 육개장국 한 그릇만 먹었으면” 밥을 외치는 대목이 명창의 목소리를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

VII. 영화 속 밥 이야기

영화 〈고령화 가족(2013)〉은 해체된 가족이 밥을 나눠 먹으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이다. ‘식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VIII. 드라마 속 밥 이야기

드라마 17극을 대상으로, 대본의 말뭉치에서 “밥벌이 하다”, “밥맛없다”, “밥값을 하다”, “죽도 밥도 안 되다” 등 ‘밥’의 출현은 무려 599회에 달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2022)〉는 매번 식사를 차려오는 어머니의



영화 〈고령화 가족(2013)〉 속 식사 장면을 보며 ‘식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허영만, 〈식객〉



〈나의 해방일지〉, “나는 지금껏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떠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집사람이 다 한 거였어.”



갑작스러운 부재를 통해, 음식을 한다는 행위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온정의 크기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IX. 만화 속 밥 이야기

허영만의 〈식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만화이다. 엄연히 음식이 주인공인 만화로, 음식 자체의 재료, 조리법, 역사적 배경 등을 감칠맛 있는 그림으로 그려낸다.

X. 밥 관련 현 상황 및 마무리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2014~2019) 전반적으로 곡류의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쌀의 섭취량 감소가 다른 곡류에 비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감소율이 지난 11년 동안보다 큰 것을 볼 때, 쌀 소비량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쌀 소비량 감소가 큰 것으로 보이며, 학교와 직장에서의 쌀 소비량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연이 끝난 후, 정운채 수강생은 “음식 이야기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풀어 설명해준 것이 신선했고 재미있었다. 강연을 해주신 정혜정 교수님의 전문성에 감탄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나마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유성구 주민으로서, 이런 웰리티 높은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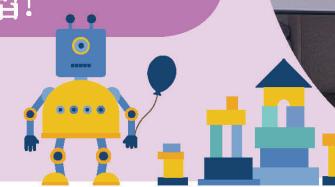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 가며 꼭꼭 씹어 삼켜낼 여유도 없이 바삐 살아간다. 자신의 몸 하나 쟁기는 것도 버거워, 등 떠밀리듯 홀로됨을 선언하는 우리. ‘식구’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시대에 밥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것이 어떨까. 또다시 치열한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다. 주말 아침, 그리운 이에게 전활 걸어 “밥 한 번 먹자!” 마음을 전해보자.

| 진형준 브릭 아티스트의 인문학 콘서트 |

블록으로 나를 만나다

진형준 브릭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이름도 생소한 ‘브릭 아티스트’. 5회차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브릭 아티스트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블록 조각 맞추기와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진형준 작가님과 함께 알아본다.

브릭 아트, 예술의 정의를 묻다.

브릭 아티스트는 주로 레고사에서 생산하는 블록을 조립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다. ‘육포공장’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진형준 작가는 전업 브릭 아티스트다.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투병생활을 이야기하다.



전작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수강생들



‘육작가의 은밀한 작업실’ 전시회를 설명하다.



‘같이 걸을까’ 작품을 소개하다.

병동에서 만난 레고 조각, 삶의 전환점이 되다.

진작가는 20대 초반, 건강이 악화돼 오랜 시기에 걸쳐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여느 또래 친구들처럼 미래의 행복을 찾아 고군분투하던 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는, 평범했던 한 청년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전역 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았던 돈이 소용없게 되자, 진작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막연히 좇기보다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그의 몸은 병실에 누워있었지만, 뜨거운 두 손에는 레고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우연히 병동에서 만난 블록을 시작으로 진작가는 브릭 아티스트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다.

레고 커뮤니티에서 그를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활발히 활동하며 차곡차곡 결실을 만들어가던 진작가는 2015년 〈도시에서 어른들이 노는 법〉 그룹전 전시 데뷔 이후, 본격적으로 전업 브릭 아티스트로서 작품활동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전국팔도브릭아트 공모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다수, 국립한글박물관 첫 돌 기념식 초청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빛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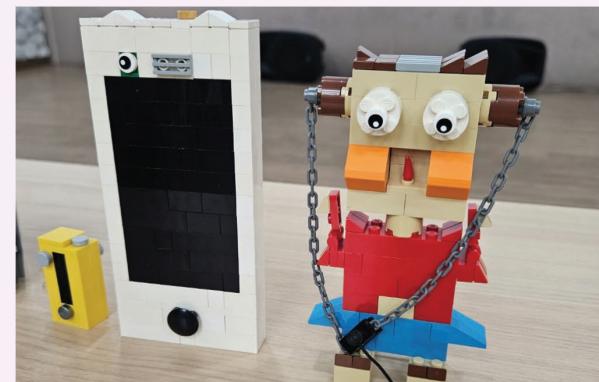
한 조각씩 맞춰가는 블록은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다.

진작가의 가장 최근 전시회 〈파노라마〉는 작가 자신의 일상을 작품으로 기록해 나열한 모습이 삶의 파노라마 같다는 의미를 지닌다. 병원을 오가는 길 벤치에 작가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 〈복희와 형준이〉는 관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재능보다 노력, 어느덧 정식 브릭 아티스트로 활동한 지 10년에 달해가는 진작가의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그에 맞춰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전진하다보면, 어느덧 지루함과 막막함은 사라지고 목적지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진작가는 레고 본사와의 협업이라는 꿈을 이뤄냈다.

강연이 끝난 후, 진형준 작가와의 짧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진작가의 초기작 '소년명수와 스마트폰'



초기작 '카메라'.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카메라에 영감을 받았다.

Q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A 8월에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작업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Q 레고 커뮤니티 동료들과 우애가 남다른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동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A 저의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죠. 투병 생활을 할 때, 커뮤니티 동료들은 저를 병동에 누워만 있는 환자가 아닌,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봄 준 덕분에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죠.

Q 브릭 아티스트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A 이 물음은 저도 평소에 스스로에게 되묻곤 하는데요,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투병생활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멀리에 있는 행복을 쫓느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Q 작품활동을 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또 어떤 메시지들을 담으려고 하시나요?

A 제가 만드는 결과물들은 제 일기장이에요. 특별한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블록을 맞추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영감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게 격려가 될 때도 있고, 반성이 될 때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을 작품으로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을 때, 작품을 보고 저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Q 오늘 강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A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들을 인문학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의 또 다른 주제는 '행복은 어디 있는가?'였는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있는 행복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이란 예술 작품의 한 조각은 어디 있을까? 분명한 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한 조각이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전부 일 수 있다. 서로의 조각을 공유하며 행복을 맞춰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이지 않을까.

| 강이숙 강사의 인문학 콘서트 |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독서 장애 중요 요인은 스마트 기기 사용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유성문화원 라온마실에서는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 특성화 사업으로 여섯 번째 인문학 콘서트에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이 콘서트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주민과 함께하며 오늘은 미디어 시대 독서교육에 대해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란 주제로 강이숙(대전시교육청 학부모 강사) 씨가 강의했다.

강이숙 강사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의 명언을



들어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2023년 성인 독서율이 13.0%인데 2021년 47.5%에 비해 너무 많이 감소했다."

"10대 청소년의 독서 장애요인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과 공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50%에 가까웠다"며 "TV와 핸드폰을 멀리하고 부모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독서 환경을 강조했다.

이어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타일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다. 단순히 리딩으로서 읽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정체성까지 읽는 방법을 찾자"며 "책을 끝까지





읽겠다는 부담보다 부분 읽기도 효과적이다.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을 10번 읽어도 좋다. 힘든 책은 덮고 시간을 둔 후 다시 읽으라”고 조언했다.

“독서는 가장 컨디션이 좋거나 일정한 시간 아니면 특별 할 때 장소를 옮겨 읽어라. 요즘 무인 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활용 하라”며 “독서 후 책을 바로 넣지 말고 감상문을 남겨라. 매번 쓸 필요는 없다. 꼭 노트에 적을 필요도 없다. 가끔 원가 메모로 남기고 싶을 때 나만의 생각을 적어 거기 붙이라”고 말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 강사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듯이’라는 글을 통해 “콩나물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흘러 퍼붓는 물은 아래로 모두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시루는 이 빠진 것처럼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어느덧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글을 읽으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교육은 긴 여정이다. 조금 노력해서 금방 성과가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독서라는 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책을 통해 얻는 게 풍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마무리했다.



| 윤석진 교수의 인문학 콘서트 |

드라마와 인생

〈눈물의 여왕〉으로 만나는 사랑과 성장의 가족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유성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제7회 인문학 콘서트(24.9.20)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장의 가족 서사”에 대해 윤석진 교수(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무더운 추석을 지나고 더위를 식히는 단비가 내렸다. 우중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라온 마실(유성문화원 강의실)이 빛났다.

드라마의 변화와 의미

○ 드라마의 역사와 흐름

드라마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차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 한 편은 약 60분 정도의 긴 분량으로, 과거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긴 드라마도 있었다.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독립된 콘텐츠로 존립하고 있다.

○ 드라마의 변화와 발전

드라마의 표현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져 왔다. 드라마 한 편은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드라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성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며 대중문화로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드라마의 현재와 미래

드라마가 주목받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률이 20%를 넘을 때로, 이 시대의 드라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드라마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드라마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 드라마의 변화와 현대 드라마의 문제점

가족 드라마의 형태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가족 드라마를 더 이상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복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가족 드라마

저출생 문제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이전에 가족 드라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배우들의 평균 연령대가 올라

가면서 10대를 잘 안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가족 드라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 드라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명제

○ 시대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음

눈물의 여왕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 주요 캐릭터가 사랑을 인식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눈물의 여왕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 가족 드라마의 변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드라마는 최근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동성, 반려동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룬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증가했다. 박지은 작가는 유명한 작가로,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작가는 '눈물의 여왕'을 통해 사랑 이야기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강조했다.

인문학
콘서트

도쿄 「나루히코」
으로
보는
세계관
의
미래와
미래

1991



○ 갈등의 심화와 이혼 위기

홍해인의 불치병 진단과 이로 인한 이혼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 홍해인은 백현우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를 숨기려고 한다. 홍해인의 투정에 병원 검진 결과는 감춰진 것으로, 이로 인해 이혼 소리를 더 키우게 된다.

○ 사랑의 종말과 성장

홍해인과 백현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별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홍해인은 아쿠아리움의 프로포즈를 받고, 백현우는 불치병 진단을 숨긴다. 홍해인은 사라졌지만 백현우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백현우는 아프로 디테의 공격으로 인해 사랑을 잃어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인생과 성장의 의미

○ 인생의 행복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하고,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남보다 잘 나야 한다는 기준 대신, 나의 자존감을 키워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생은 각본 없는 모노드라마이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한 강의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행복을 꽂피워 나가는 드라마 연출을 기대한다.

사랑과 갈등의 여정

○ 사랑과 갈등의 시작

홍해인이 백현우에게 우산을 주고 가는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게 된다. 홍해인의 첫사랑인 버스맨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백현우는 홍해인과의 관계가 어긋난다. 백현우는 아쿠아리움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 백현우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홍해인과 사랑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한국무용 태평무 이수자 강소정 강사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유성문화원의 문화강좌 중 태평무가 있다. 태평무 이수자 강소정 강사를 만났다. 청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다. 태평무 보유자이신 박재희 선생님에게 춤을 배웠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제자로 춤을 계속 배우며 가르치고 있는지 30년이 넘었다. 교수님께서 보유자가 되시고 이수의 전수자로서 그 과정을 거쳐 이수 자격을 취득했다.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정식으로 이수자 자격을 수여 받았다. 한영숙 태평무가 문화재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총 50명의 이수자가 있다. 강소정 강사는 “태평무 이수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태평무 이수자 강소정 강사



강소정 태평무



태평무 공연

태평무 이수자의 책임

태평무 이수자는 태평무를 올곧게 가르치고 전승하고 보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남다른 노력으로 태평무를 배우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태평무는 나라 잊은 1930년대에 대한 아픔과 광복을 꿈꾸는 의식의 표현이다. 태평무를 통해 나라의 광복을 꿈꾸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태평무는 다른 민속춤과 달리 나라의 광복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춤이다.

태평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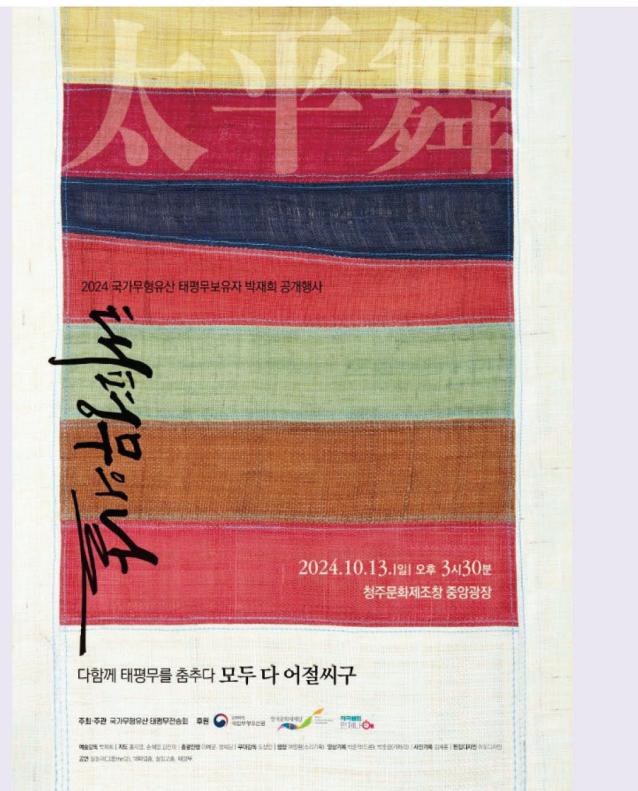
태평무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이다. 36년간 자유를 잊은 나라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해방을 통해 나라의 태평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한다. 태평무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국태민안의 뜻이 담긴 큰 춤인 것이다. 태평무를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업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태평무 공연과 자세

전통춤의 지도법과 태극권을 예시로 들어 어르신들에게 전통춤의 자세와 호흡을 강조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가 펴지고 예뻐진다.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의 기량을 뽑아내는 능통한 사람으로 일했다. 많은 회원들의 응원으로 수업이 성공적으로 재미있게 이어진다.



공연을 기리며



태평무의 날

전통춤 공연의 열의와 후원 요청

전통춤 공연을 하는 동안 열의가 높으며,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습 장소가 없어 공연장 대회 참가를 위해 팀별로 구성하고 각자 연습한다. 강사가 공연팀을 구성하여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3년 이상 공연을 계속 하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2024년 10월 13일 태평무의 날 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성문화원 수강생 11명이 참가하여 공연을 한다. 넓은 잔디밭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다 같이 태평무를 춘다. 이날 드론 영상도 촬영할 예정이다.

우리의 전통 무용 태평무는 우아함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며, 건강을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태평무를 추는 동안은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 맥이 끝까지 이어져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태평무의 날이 평화와 태평성대가 펼쳐지는 날로 이어지길 바래본다.

2024 유성문화원 특별강좌

「세대 간 갈등극복을 위한 화법」 강좌 열려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야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유성문화원 라온마실에서는 어르신 국어문화프로그램 공감과 소통 시리즈 ‘세대 간 갈등극복을 위한 화법’ 강의가 계속됐다. 이 강좌는 2024 유성문화원 특별강좌로 7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한성숙 선임연구원이 진행했다.

한성숙 강사는 “‘나’를 아는 것이 세대 간 화법의 첫걸음이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며 이름의 의미나 이름에 얹힌 에피소드, 자신의 특징을 내세워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화법은 ‘너’에게 다가가 ‘우리’가 되는 것”이라며 의사를 결정할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기준을 잡고 결론을 내라고 강조했다.

한 강사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라”며 “말은 일회성이다.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시각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각 표현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상, 미소, 신체적 동작 등도 자기 생각을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대화에는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더 나가 그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다”며 “경청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는 쌍방향 소통이다.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대화일수록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 고정 관념 등을 배제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바쁘고 힘든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음악은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특히 축제 음악은 관객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그중에서 재즈 음악은 특유의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대전 유성구의 대표적인 축제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가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8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 열렸습니다. 유림공원 동편은 '재즈랜드', 서편은 '라라랜드'로 재즈 공연, 수제 맥주 부스, 재즈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여름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운 '재즈랜드'를 소개할게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밤바람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된 듯한 특별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낭만으로 가득 찬 여름밤이었죠!

국내외 유명 재즈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재즈 공연을 이어 나갑니다. 공연마다 수준 높은 재즈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정통 재즈부터 대중적인 재즈 음악까지 다양한 재즈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는 재즈 공연을 관람하면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관객들은 다양한 수제 맥주와 음식을 즐기며 재즈 음악을 감상합니다.

시원한 수제 맥주로 막바지 여름 더위를 식혀 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축제! 저는 3번 다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채색이던 일상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꼭 방문해 보세요.

많은 시민이 이번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를 통해 문화적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했습니다. 카바나를 예약제를 운영해 카바나 이용객은 더욱 편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 때는 꼭 예약에 성공해서 카바나에서 공연을 관람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축제가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는 축제 방문객에게 문화적 즐거움과 함께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이 있더라도, 바쁜 일에 발걸음이 빨라지더라도,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자체로 힐링의 순간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피아노 프리 버스킹' 모습입니다. 오가는 축제 방문객이 자유롭게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고 관람하는 형태입니다. 피아노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피아노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 '용기내봐! 커피줄게!'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텁블러(다회용 컵)을 지참한 참가자에게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티를 선물했습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모든 것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계절마다 다른 테마 축제가 있습니다. 봄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여름은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 가을에는 국화음악회 & 문화공연, 겨울에는 유성크리스마스축제까지! 이번 여름은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와 낭만의 재즈와 함께했다면, 가을에는 국화 전시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방문해 보세요. 혹시라도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에 참여 못 했다면 아쉬움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올 연말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분명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여겨질 테니까요!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

기간 2024. 8. 23(금) ~ 25일(일)

장소 유림공원



대전 0시 축제에서 만난 유성의 전통민속놀이 '시간여행 민속퍼레이드'

유성문화원 이기봉 해설사

대전 0시축제 현장에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 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시오십분 ~ ~」이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옛) 충청남도청의 중앙로 일원에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대전 0시축제는 1965년 최치수 작사·김부해 작곡, 안정애가 노래한 『대전부루스』에 나오는 「대전발 영시오십분」을 모티브한 것으로, 이 노래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의 하나로 8월 16일(금, D+7일) 18시부터 진행된 시간여행 민속퍼레이드는 대전전통민속놀이 보존회연합회와 5개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10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유성구에서는 구즉동 바구니동구나무제, 유성 온천놀이,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가 참여하여 축제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유성의 민속놀이를 선보일 기회를 가졌다.

구즉동 바구니동구나무제

구즉동 바구니동구나무제는 구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느티나무(대전광역시 기념물)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에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의 목신제로, 오늘은 이종희 회장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유성 온천놀이

유성 온천놀이는 마을 주민들이 온천수를 뽑아내기 위하여 샘을 팔 때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샘을 파는 과정을 묘사한 놀이로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정은혜 회장과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퍼레이드를 펼쳤다.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는 조선 중기 이산진(理山鎮, 지금의 초산) 병마만호를 지낸 노세신 장군의 장례식 때 행해진 것으로, 상을 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죽은 이가 저승으로 가기 전날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가 나갈 때 상여머리에서 저승길을 가는 혼령을 달래느라 상여꾼들이 부르는 상두가(喪頭歌)를 부르면서 태어나면서부터의 큰 꿈을 저승에 가서 얻으라고 기원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민속놀이로, 대떨이 만가, 출상 만가, 노제 후 만가, 장애물 만가, 물 건널 때 만가, 외나무다리 만가, 산오름 만가 등 일곱 마당으로 이루어진 놀이이다. 오늘은 선칠수 회장과 2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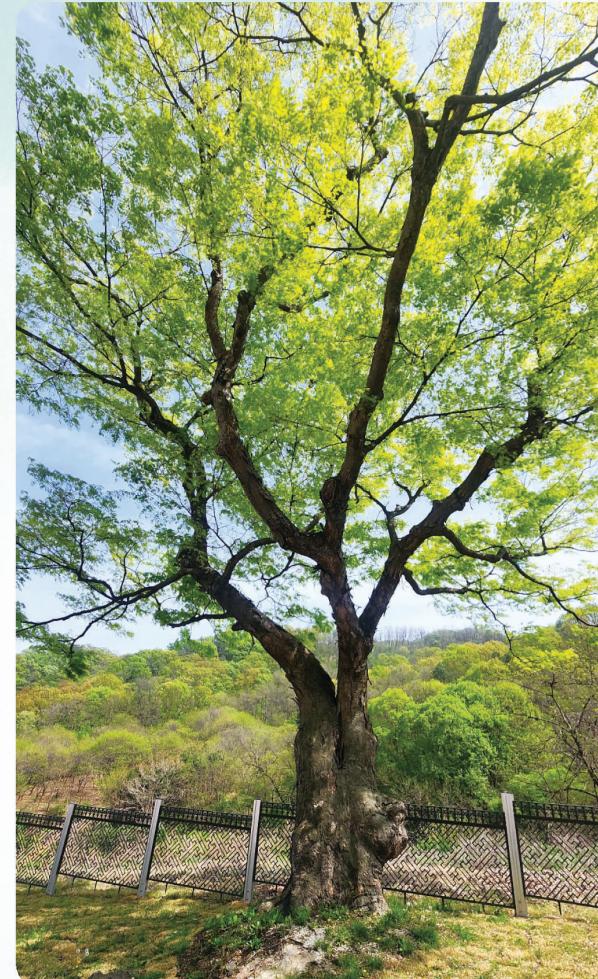


구룡동 이병득 효자 정려 이야기

유성문화원 김금원 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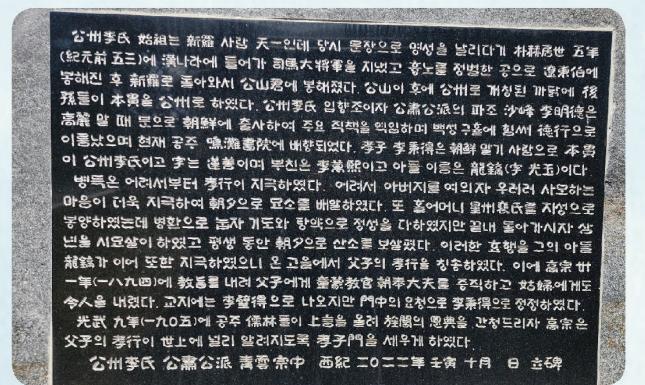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대는 지금 상전벽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대덕과학연구단지의 마지막 고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 신동/둔곡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시설이 들어서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및 거주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런 곳에 충절의 고장답게 조선 말 고종 임금 때 효자 이병득(孝子 李秉得) 선생의 정려각이 자리잡고 있어 관심을 끈다.





과거 유성지역은 공주부 직할지역으로 공주를 본관으로 하는 공주이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공숙공파(恭肅公派)의 파조 이자 입향조인 이명덕(李明德)선생은 고려말 조선 초기 문신(文臣)으로 백성구휼에 힘쓴 덕행으로 이름났으며, 현재 공주의 명탄서원(鳴灘書院)에 배향되어있다. 또 그의 후손인 효자 이병득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사모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해 조석으로 묘소를 배알하였으며, 훌어머니 성주 배씨(星州 裴氏)를 지성으로 봉양하다가 병환으로 눕자 탕약으로 정성을 다했지만 끝내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 하고 평생을 조석으로 산소를 돌보았다.

이러한 그의 효행을 그의 아들 용호(龍鎬)도 이어받아 지극했으므로 온 고을에서 부자의 효행을 칭송하였고, 드디어 고종31년(1894년)에 나라에서 교지를 내려 부자에게 '동몽교관 조봉대부'를 증직하고 효행이 널리 알려지도록 효자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당시 충청지역에서는 모두 12명의 효자 표창 상신이 있었지만 이병득부자와 은진송씨네만 선정되었다고 한다.(후손 이용태씨 증언)



유성구 구룡동에는 공주이씨 후손들이 60여호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근래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과 연구시설 및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주민이 이주하였다. 공주이씨 후손들은 부득이 산기슭 저수지 근처 큰 느티나무 옆의 좋은 터를 골라 유성구와 토지공사의 협조를 받아 정려각을 이전하고 매년 시제도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유산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인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행심을 계승 선양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에 우리 고장에 남아있는 효자정려는 그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휴식 레아북카페

미래를 그리는 교육 선구자 김은형 대표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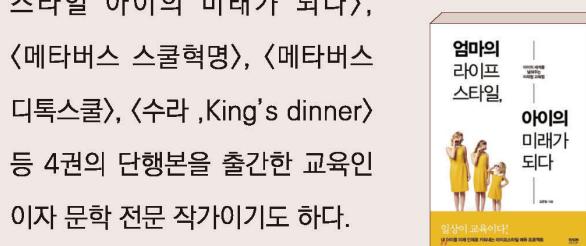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자리한 <교육과 휴식 레아북카페>는 이만 여 권의 인문학 서적을 보유한 국내 최대 묵은책 북 카페이다. 공간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앤틱 소품들 또한 빛난다. 특별한 공간인 만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대전의 명소로 거듭날 올림을 주는 공간이다. 사람 삶이의 새로운 스타일을 펼쳐내는 라이프스타일 교육 전문 카페이다. 그 주인장 김은형 대표(이하 김대표)를 만났다.

(2024.7.5.)

김은형 대표는

김대표의 이력은 탁월함으로 빛을 발한다. 역사교사로 30년간 재직했다. 목원대학교 교직과 겸임교수, 라이프 스타일교육 주창, 대안교육, 미래교육, 창의교육, 중독 예방교육,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ESG교육(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인문학교육, 청소년상담가, 가족상담을 했다. 예술경영학석사, 축제기획, 전시공연 기획, 스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라이프코칭, 로컬크리에이터, 푸드아티스트, 라이프스타일리스트 등 끝없는 도전의 이력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메타버스 스쿨혁명>, <메타버스 디톡스쿨>, <수라, King's dinner> 등 4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교육인 이자 문학 전문 작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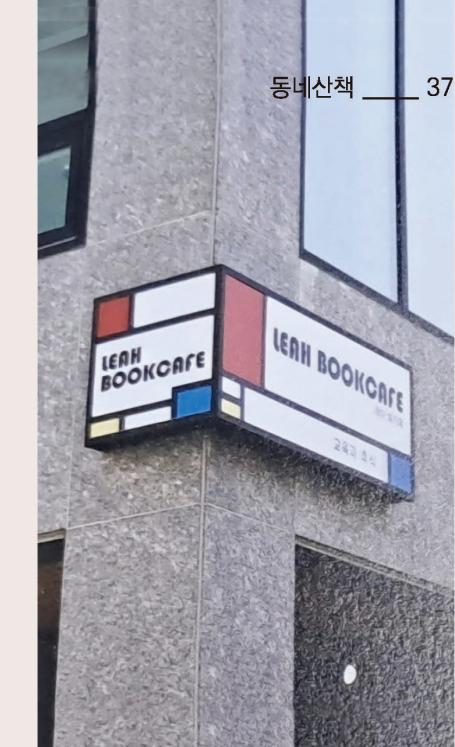


김은형 대표의 저서들

레아북카페는?

미래교육에서는 명상, 독서, 느린 고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벽 독서로 <레이북클럽>을 연지 1년 반이 되었다.

레이북카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카페스쿨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비전에 수긍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비영리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가되 수익금은 남을 위해서 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간다. 무주상보시(집착없이 베푸는 것)의 마음으로 이미 수행을 하는 수행자이기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책도 쓰고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카페 스쿨로서의 레아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과 휴식 LEAH BOOKCAFE



음식과 함께하는 토론장



야외 테라스

레이북카페 공간에서는

레이북카페는 명상, 힐링캠프, 북클럽, 글쓰기 클럽, 푸드 테라피 등 카페스쿨로 교육과 휴식이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김대표는 특별한 요리사도 아니고 특별히 음료를 배운 바리스타도 아니다. 다만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과일과 음료를 낸다. 한약재인 당귀를 푸드 스타일로 내는 재료로 쓰는 등 음식의 맛보다는 테라피가 더 핵심적이다. 김은형 대표의 4번째 책 <수라, king's dinner>는 푸드테라피 명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책이기도 하다. 음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에 깨어 살아야 되는가를 깊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 도서들



레몬에 당귀로 장식한 음료와 과일



카페의 소품들

마지막 지향점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인데 불법(佛法)을 공부해 보니까 명확한 미래 비전이 보인다. 욕심내지 않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김은형 대표는 스스로가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에 명상한다고 한다. 스스로 다시 성찰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화사한 동백꽃 같은 김대표!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아하고 품격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이다.

우아하고 품격이 있다는 건 상대의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품격있는 삶도 존중에서 나온다. 그의 정신과 넓이 더욱 빛나길 바라본다.



카페 도서들



레몬에 당귀로 장식한 음료와 과일



카페의 소품들

마지막 지향점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인데 불법(佛法)을 공부해 보니까 명확한 미래 비전이 보인다. 욕심내지 않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김은형 대표는 스스로가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에 명상한다고 한다. 스스로 다시 성찰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화사한 동백꽃 같은 김대표!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아하고 품격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이다.

우아하고 품격이 있다는 건 상대의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품격있는 삶도 존중에서 나온다. 그의 정신과 넓이 더욱 빛나길 바라본다.

인문학 콘서트



4/13(토) 10:00 1층 전시실

내 자녀의 인간관계
- 소통과 조화로 크는 아이들

이재걸 강사

한국여가문화지원센터
좋은놀이문화연구소 대표



4/26(금) 14:00 3층 라운마실

시대 읽어주는 남자
- 급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서기

김홍섭 부소장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전)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전)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5/17(금) 14:00 3층 라운마실

내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 이름그림과 삶의 이야기

박석신 작가

한국화가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 저자
복합문화공간 '꼬씨꼬씨' 운영



6/14(금) 14:00 2층 다목적실

밥 한번 먹자!
- 한식문화의 씨앗, 쌀 이야기

정혜정 교수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장 역임
알버트넬슨 마르퀴즈 공로상 수상



7/12(금) 19:00 3층 라운마실

블록으로 나를 만나다
- 조각 맞추기가 예술이 되기까지

진형준 작가

브릭 아티스트,
전국팔도브릭아트 공모전 최우수상,
'안녕 나의 벗' 외 다수 전시회



8/9(금) 10:00 3층 라온마실

미디어시대의 독서교육
-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강이숙 강사

독서코칭강사
대전시교육청 학부모강사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 독서지도강사



9/20(금) 14:00 2층 다목적실

드라마로 보는 인생
-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윤석진 교수

충남대 국어국문과 교수
서울드라마아워워즈, 백상예술 대상 TV부문
심사위원



10/11(금) 14:00 2층 다목적실

슬기로운 환자생활
- 의사와 환자사이

김기덕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대전선병원검진센터장
대한생활습관병학회 수석학술이사



11/7(목) 19:00 2층 다목적실

내 인생 음악에 실어~
- 힐링클래식의 향연

한동운 감독

유벤토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목원대 작곡학부 교수
'음악에 생각을 담다' 저자



12/13(금) 19:00 2층 다목적실

나이듦에 대한 고찰
- 희망으로 걷는 마음 걸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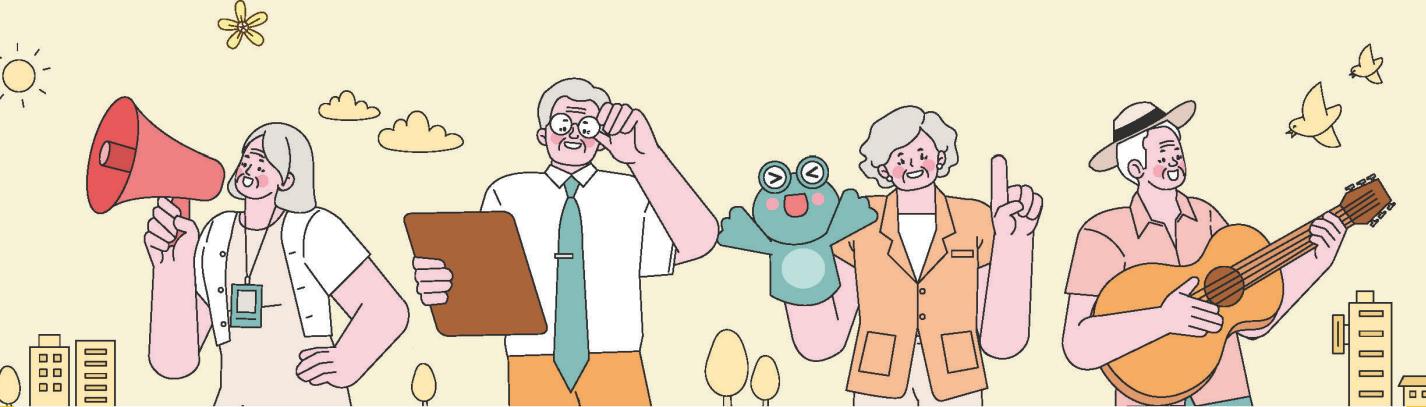
윤정애 강사

심리학박사
마인드앤바디브릿지코리아 대표
전)대전보건대 교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릴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 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 시설 등으로 전통놀이 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2024년 유성문화원 문화강좌 시간표

요일	강의시간	예체능실(4층)	전통문화실(4층)	취미교실(3층)	세미나실(3층)	라온마실(3층)	다목적실(2층)
월	10:00 ~ 12:00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4.5	가락장구단 이준옥 7.5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7.5	배우기 쉬운 아코디언 김은순 9.0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9.0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6.0
	13:00 ~ 15:00	청풍명월 동아리	경기민요 이순임 4.5	어반스케치 신지혜 7.5			
화	10:00 ~ 12:00	청풍명월 윤민숙 6.9		한글서예 윤병건 7.5	포크통기타(초급) 9:30 ~ 11:00 이석진 9.0		
	13:00 ~ 15:00	진도복춤 김원경 9.0		문인화 박경학 5.7	포크통기타(고급) 11:00 ~ 13:00 이석진 9.0		
수	15:30 ~ 17:30		시조창 박학미 6.0		포크통기타(중급) 14:00 ~ 16:00 이석진 9.0		
	10:00 ~ 12:00	김숙자류 입춤 김연의 9.0	경서도민요 & 평복농요 오현숙 5.7	벗생 & 수채화 김해숙 9.0			
목	13:00 ~ 15:00	도살풀이 동아리	판소리 지유진 9.0			오카리나 한연호 9.0	
	10:00 ~ 12:00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9.0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5		우쿨렐레 백선경 9.0	
금	13:00 ~ 15:00			유화 송채례 10.5		우쿨렐레 동아리	
	15:30 ~ 17:30			유미회 동아리			
토	18:30 ~ 20:30	댄스스포츠(초/중급) 이영린 9.0	가야금 권정옥 6.9		해금(목요) 정다솔 6.9	대금과 단소 이재천 6.9	
	10:00 ~ 12:00	태평무(오전) 강소정 9.0		한국화 김진순 7.5			
일	13:00 ~ 15:00	태평무(오후) 강소정 9.0	가야금 병창 13:30 ~ 15:30 복선영 7.5				
	15:30 ~ 17:30			토탈 캘리그라피 양영 9.0			
토	10:00 ~ 12:00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5.7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9.0	해금(토요) 정유라 6.9	
	12:40 ~ 14:40	댄스스포츠(고급) 이영린 9.0	유성농요 김숙희 4.5		팬플루트(오후) 박상봉 9.0	해금 동아리	

■ 기존강좌 ■ 전통강좌 ■ 동아리

2024년 유성문화원 회원모집



회원혜택

- 정기문화답사 참가(연 1회 무료)
- 각종 문화행사 우선 알림 및 참여 기회 제공
- 정기간행물 <문화유성> 배부

회원가입 안내

연회비 12만원

납부처 **하나은행 659-910031-38104**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 042)823-3915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54만원(full 9시 ~21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 조명 무료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89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7시~21시 종일 09시~17시 full 09시~21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자침)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15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자침) 	무료
	라온마실 무대/좌석 50석	16만원				
4층	전통문화실	13만원			음향 없음	
	예체능실	13만원				

문화유성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그라피

유성문화원 캘리그라피 강사 심혜순

발행인 이재웅

발행일 2024년 9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행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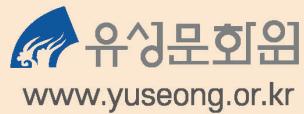
전화 042)823-3915~6

팩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육성

2024
Vol.229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